

농림축산식품부

AI 전국 이동제한 해제 및  
경계단계 하향 조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지난해 9월 24일 전남 영암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취해졌던 전국 이동제한을 7월 15일 18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6월 10일 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에서 최종 발생한 이후,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고, 예찰지역 내 가금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어 전남 영암지역에 유지되고 있던 2개 방역대가 최종 해제됨에 따라 전국적인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이와 함께,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부터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조정 조치할 계획이다.

\* 위기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참고로, 지난해 발생 이후, 9개 시·도 34개 시·군에서 총 162건이 발생하였으며, 234호, 511만수를 살처분 하였고, 이동통제초소 운영 등에 약 14만6천명의 인력이 동원되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평시 표준행동요령\*에 따라 차단방역을 추진하되, AI 재발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사후관리 강화, AI 바이러스 유입 여부의 조기검색 및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시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 폐사체·출하 전·야생철새 검사 등 상시예찰, 농가 교육, 기상방역훈련(CPX) 등

사후관리 체제에서 사전예방 체제로 방역관리 방

향을 전환하여 상시 발생할 수 있는 AI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고, 오리 등 가금산업 체질개선, 농가 질병관리 체제 구축 등 사육 및 질병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상시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등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보완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및 AI에 대한 선제적 차단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합동 구제역 및 AI 가축방역 특별점검 등을 통해 농가별 발생원인 분석, 방역 취약사항 등을 평가하여 특별대책 기간 이전에 맞춤형 차단방역을 선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재 발생 원인이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AI 재발방지를 위해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의 참여하에 농가별 사후관리에 총력을 다 할 뿐만 아니라

검역본부 중앙 기동점검반을 동원하여 발생농가 입식을 위한 현지실태 점검을 통해 전실 설치, 축사 내·외부 소독, 매몰지 관리, 농가 방역의식 등을 종합적인 검토하여 승인함으로써 재발 위해 요소를 최소화 하고,

농식품부·지자체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가별 방역조치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차단방역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과 소독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농가 및 발생지역 주민은 물론 불편함을 감수한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AI 의심 가축 발견 즉시 신고(1588-4060/9060) 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요청하였고,

“축산관계자는 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

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입국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 영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 수입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영국에서 H7N7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영국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신선 가금육 등의 수입을 7월 14일부터 금지하였다고 밝혔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는 7월 10일 랭카셔지방의 산란계 농가에서 의심축 신고가 있었고, 7월 13일 정밀검사 결과 H7N7형 HPAI로 확진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병아리, 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신선 가금육(열처리제품제외) 등이다.

※ 영국산 가금 및 가금육에 대해서는 '14.11.16일 수입금지조치한 바 있으며, 이후 HPAI 청정성 회복여부를 확인한 후 '15.5.6일 수입을 재개하였음

농식품부는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공항만 입국장 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신고하고 소독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 청소년 대상 동식물 검역 이색 체험교실 운영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지역본부장 김대균)는 2015년 하반기 서울시 강서구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물·식물 검역과 관련된 업무와 이에 관련된 직업군에 대한 이색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7월 16일 밝혔다.

평소 청소년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동물·식물 검역 교육 및 진로체험 교실이 눈길을 끌고 있으며, 7월 16일 백석중학교 학생 대상 교육을 시점으로 '여름방학 김포공항 청소년 국경검역 홍보캠페인'과 9월에 2차 진로체험 교실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첫 번째 체험교실에 참가한 백석중학교 학생들은 동물·식물 검역의 다양한 분야와 실험실, 검역 업무 현장을 견학하고 수의사 및 식물검역관 등 이색 직업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학생들은 현장견학을 통해 온라인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는 살아있는 외국 사슴벌레 및 장수풍뎠이 같은 수입 금지품의 종류

와 피해사례를 교육받고 외래식물병해충 유입방지가 우리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첫걸음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지역본부 검역관들은 지역 청소년 교육에 동참하는 보람을 느꼈고,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색다른 직업에 대해 폭넓게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김대균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진로체험의 행사처럼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부3.0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중 식육 원료 혼입여부 판별법 기술 이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 중 소·돼지 등과 같은 식육원료, 닭·오리 등과 같은 가금류 원료의 존재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기술을 생명공학벤처기업인 (주)코젠바이오텍에 기술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 이전은 식약처가 자체 개발하고 특허 등록된 유전자 분석기술을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주)코젠바이오텍은 유전자 감식, 한우판별유전자 분석 등 유전자 분석 전반에 걸친 검출키트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생명공학벤처기업이다. (주)코

젠바이오텍은 해당 분석법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실제 제품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 점유율을 인정받아 로열티를 받게 된다.

이번에 이전되는 기술은 식약처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체 개발하고 2013년 특허 등록된 ‘식품원료 내 식육 및 가금류 혼입여부를 판별하는 유전자 분석법’으로 식품원료에 존재하는 고유한 유전자(DNA)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 식육원료 : 소, 돼지, 염소, 사슴, 양, 말고기

※ 가금류 원료 : 닭, 오리, 칠면조, 타조고기

소, 돼지, 닭 등 해당 종(種)에만 존재하는 종(種) 특이 유전자의 특정부위를 찾아내고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사용해 증폭시켜 가공식품 중의 특정 식육원료와 가금류 원료가 소량이 함유된 경우에도 밝혀낸다.

※ 중합효소연쇄반응(PCR) : Polymerase Chain Reaction, 유전자의 특정한 부위를 증폭시키는 방법

미트볼, 햄버거 패티 등의 제품 원재료로 소고기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고 실제로는 말고기를 사용한 경우, 소고기 대신 사용된 말고기의 혼입 여부를 판별해 낼 수 있어 표시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할랄(halal) 인증과 관련하여 돼지고기를 사용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표시한 경우를 확인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박근혜 정부의 4대약인 불량식품 근절의 일환으로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 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법을 개발해왔으며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화 기술 정보 서비스 제공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해 섬유질배합사료(TMR)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여름철 농식품 부산물 보관과 이용 방법을 소개했다.

농촌진흥청은 정부3.0 사업의 하나로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화 기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지박, 전통주박, 버섯배지 등은 가격이 저렴하고, 영양 가치가 높은 장점이 있다. 제대로 사용하면 농가 수익을 늘리고 부존자원을 재활용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수분 함량이 높은 특성이 있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대장균, 보툴리눔, 곰팡이 등 유해 미생물로 부산물이 썩거나 사료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여름철 사료용 농식품 부산물을 보관하거나 저장할 때는 원료명, 반입일자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먼저 들어온 것부터 사용하도록(선입선출) 나눠 보관한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며 습도 40%~50% 내 건조한 곳에 보관하되, 곤충이나 조류, 설치류(쥐)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사료배합기, 사료저장통은 가장자리 부분에 붙은 사료를 정기적으로 없애야 곰팡이독소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또, 바닥에 깔판을 설치하면 땅의 열기나 습기를 막을 수 있다.

아울러 수분 함량이 높은 농식품 부산물은 발효

균주를 접종해 보관하면 저장기간이 늘고 부패미생물이 자라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동결건조 또는 분말로 된 발효균주는 액상배지에서 1차 배양해 균주 활력을 높인 후 접종한다.

농가에 비치된 사료배합기나 발효기에 농식품 부산물을 넣은 뒤 발효균주를 접종해 골고루 섞어 준다. 이렇게 섞은 농식품 부산물은 고무통이나 비닐이 있는 자루에 담아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 유산균, 고초균, 효모 등 발효균주는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민간업체에서 분양, 구입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재환 영양생리팀장은 “고온다습한 여름철은 한우 생산성과 건강 유지, 사료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계절이다”라며, “농식품 부산물을 올바르게 보관하고 이용해 가축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도록 하자”라고 전했다.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 영남지역 오리농장, 축산물 HACCP 첫 인증

영남지역에도 축산물HACCP을 인증받은 오리농장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주인공은 다오리농장과 억조농장이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김진만 원장, 이하 인증원)은 7월 1일 대구소재 영남지원에서 경상도내 오리농장 최초로 HACCP 인증을 받는 두 개의 농장에게 HACCP 인증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

했다.

이날 HACCP 인증서를 전달받은 다오리농장(이시국 대표)와 역조농장(이선이 대표)은 각각 2만1천수와 1만8천수 규모의 육용오리 농장으로 약 7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6월 2일 HACCP 농장으로 최종 인증되었다.

전국적으로 6월 기준 HACCP 인증 오리농장은 173개에 이르지만 대부분이 호남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경상도지역 첫 오리농장의 등장은 HACCP 인증을 준비 중인 다른 농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시국 다오리농장 대표는 “영남지역 최초로 오리농장 HACCP인증을 획득하여 매우 기쁘다.”며, “HACCP인증을 준비하면서 농장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기록하는 습관도 생기는 등 농장운영에 있어 많은 이점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이 역조농장대표는 “HACCP은 인증 당시 보다 사후 운영과 농장주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자부심을 갖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오리고기를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남지원은 지난 7월 3일 합천축협에서 합천 관내 HACCP 및 친환경 축산 농장(업소)를 대상으로 ‘제2차 찾아가는 기술상담’을 개최했다.

합천축협 우수축산물 브랜드 소속농장(업소)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술상담은 현재 HACCP과 친환경축산을 운영하는 농장뿐만 아니라, 이제 준비하는 농장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전문심사관들과 1:1 맞춤형으로 진행했다.

신현호 농장팀장은 “앞아서 기다리기보다 각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1:1 맞춤형 기술상담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인증원의 심사관들

은 각 농가 및 업체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장위주 기술지원을 능동적으로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식품 생산업체,  
7월부터 HACCP심사 한번에  
HACCP One-stop 관리체계로 개선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김진만 원장, 이하 축산물인증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축산물·식품 HACCP 인증관리 개선 권고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오혜영 원장, 이하 식품인증원)과 업무협의를 갖고, 7월부터 축산물과 식품을 함께 생산하는 업체의 HACCP 인증심사 시 양 기관에서 합동 심사팀을 편성해 인증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인증원과 식품인증원은 지난 6월 업무협의를 갖고 축산물과 식품을 함께 생산하는 업체의 HACCP 심사의 One-stop 관리와 HACCP 평가항목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축산물과 식품을 함께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HACCP 심사를 지금까지 양 기관이 각각 실시하던 것을,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신규로 신청되는 것부터 양 기관이 함께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축산물·식품 HACCP의 평가항목은 지금 당장 동일기준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시범적으로 현장심사를 진행한 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매월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갖고 HACCP 인증심사 일정과 심사팀 편성 등을



사전 조율하기로 했다.

축산물인증원 김준우 가공유통팀장은 “축산물과 식품을 함께 생산하는 업체는 그동안 원료함량에 따라 HACCP 심사를 축산물·식품 인증원에 각각 신청하고 각각 심사받는 불편이 있었다.”며 “양 기관에서 긴밀한 업무협업을 통해 업체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축산물·식품 공동 생산업체는 419개소(육가공 126, 유가공 291, 알가공 2) 정도이고, 이중 HACCP 인증업소는 105개소에 불과하나 이번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업소가 HACCP 인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eKAPEpia 축산뉴스 서비스 인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 영)이 지난 5월말 출시한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eKAPEpia(www.ekapepia.com)의 축산뉴스 서비스가 축산업계 관계자로 부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eKAPEpia 축산뉴스 서비스는 각 신문사 홈페이지에서만 볼 수 있던 축산관련 기사를 eKAPEpia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한 서비스이다.

서비스 개시 결과, eKAPEpia 방문건수가 시행한 달 만에 26% 증가하여 6월 한 달 방문자수가 22만 명을 돌파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허 영 원장은 “정부3.0의 일환

으로 시작된 eKAPEpia가 앞으로도 더 많은 신문사와 제휴를 통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직거래 창업 토크콘서트  
흥행 대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7월 10일 금요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 북카페에서 ‘농산물 직거래, 청년의 미래가 되다’를 주제로 농산물 직거래 창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번 창업 토크콘서트는 현재 접수 중인 ‘2015 농산물 직거래 창업 및 창의아이디어 공모전’과 연계하여, 직거래 창업에 뛰어든 청년들의 생생한 창업스토리를 통해 농업분야가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무궁무진한 매력적인 분야임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크콘서트 전반부는 어린이 버섯키우기 체험 키트로 마니아층을 형성한 ‘자라라버섯 차주훈 대표와 온라인 직거래의 대표주자 헬로네이처 박병열 대표의 창업기를 듣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차주훈 대표는 ‘내손으로 키우는 버섯’을 주제로, 박병열대표는 ‘유기농체험키트가 대박’이라는 주제로 관객들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연이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날카롭지만 때로는 엉뚱한 질문들과 재치 발랄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강연자들이 흐뭇하면서도 진땀을 뺐다는 후문이다.

농촌밴드 '살콤밴드'의 미니콘서트도 관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살콤밴드는 충남 아산 음봉면 마을주민들이 2012년에 결성한 마을밴드로 평균 나이 51세의, 마음은 청년인 농부들의 소박한 농촌살이를 경쾌한 노래로 들려주었다.

aT 관계자는 "일방적인 강연이 아닌 관객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강연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그 어느 때보다 관객들의 몰입도가 높았다"면서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취업난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청년들에게 농업분야가 가진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농협중앙회

#### '우리농산물 범국민 소비촉진 운동' 선포식 개최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7월 15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 농협중앙회장, 언론인, 소비자, 농업인, 농업관련 단체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농산물 범국민 소비촉진 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 행사에서는 ▲우리농산물 명인(名人) 소개 및 인증패 증정 ▲농협·현대자동차의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MOU 체결식 ▲소비자·생산자 대표의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다짐문 낭독 ▲명인·명작, 농산물꾸러미 등 우리농산물 전시 부스 순람 등이 진행되었다.

농협은 최근 국내 식량자급률의 지속하락에 따른

식량안보 위협과 수입농산물 범람에 따른 우리농산물 소비부진 및 가격하락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협 주도로 「우리농산물 범국민 소비촉진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명인(名人)·명작(名作) 등 우수 농산물 개발 및 책임판매까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농협 a마켓, 신설 TV홈쇼핑 등 유통채널 다각화를 통한 우리농산물 판매 확대 ▲쌀 소비 확산을 위한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 전개 ▲기업체 및 지자체 등과 연계한 상생마케팅 확대 ▲소비촉진 캠페인 TV광고 방영 및 농산물 Day마케팅 실시 등 소비촉진 홍보활동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 농산물 개발과 판매확대를 위해 명인(名人)·명작(名作)을 선정하여 농협이 100% 책임판매 할 예정이며, 이는 우리농산물을 단순한 애국심에 호소하여 파는 차원이 아니라 안전성·신선도·맛 등 상품 경쟁력을 높여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앞서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농협 a마켓, 신설 TV홈쇼핑 등 유통채널 다각화를 통해 우리농산물 판매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농협은 기존 오프라인 매장인 하나로마트와 연계하여 온라인채널인 농협a마켓과 신설 TV홈쇼핑을 활용하여 판매농협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은 "최근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와 지속된 가뭄, 수입농산물 범람 등의 영향으로 우리농산물 소비가 침체되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전 국민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판매농협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